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4년
2015년 4월 2일
음력 2월 14일

월간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법등(구창희)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9년 제185호

불교총지종 총기 44년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

불교총지종 나라와 자녀를 위한 『총기 44년 상반기 49일 나라와 자녀를 위한 불공』이 4월 12일 전국의 사원에서 회향한다.

지난 2월 23일 입제한 전국의 총지종 교도들은 지난 49일 동안 스승과 함께 나라의 안녕과 자녀들을 위한 불공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임했다.

불교총지종만의 특별한 의례로 진행되

는 49일 불공은 『진호국가불사』로 그 기원은 멀리 신라 명랑법사에게서 거슬러 올라간다. 『진호국가불사』의 진언은 “음향야호사”이다.

이 진언불사 출처는 중조 원정 대종사가 밀교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했다.

이 불사의 주요 서원사항은 나라발전, 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이다.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9일 동안 봉행한다.

지난 총기20년(1991년)부터 중령 특별유시로 자녀가 잘 되어 나라의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한 자손 불공이 추가되었다.

이번 회향일은 설연휴로 입제가 3일 늦추어져 회향도 늦추어졌다. 종단은 올해만 4월 12일에 마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제51차 정기총회 및 1차 이사회 개최

부회장에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사무총장에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스님 선출



▲종단협 정기총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제51차 정기총회 및 2015년 제 1차 이사회를 3월 10일 하림각에 개최했다.

회장 자승 스님은 성원을 확인하고 제 51차 정기총회의 개최를 선언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상임이사 자격에 대한 정관 규정이 미약하다는 논란이 있어 선출 규정에 의무이행이 미약한 종단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상임이사종단에서 이사 종단으로 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정관을 개정 했다.

이어 열린 2015년 제1차 이사회에서는 불기2558(2014)년 결산의 건, 임원 변경의 건, 사무총장 추천의 건, 2015년 종단협 의전 순서, 기부금 영수증 부정 발급 현황 및 근절의 건, 제18차 한중일 예비회의의 건, 불교지도자 성지순례의 건, 불기2559 (2015)년 봉축행사 봉행의 건, 「광복70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안내의 건 및 기타사항을 의결이 심의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3월 10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사무총장 홍파 스님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사무총장 선출에는 총지종 법등정사가 회의 직전 사퇴를 해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과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투표결과 참석이사 32명 중 20표를 획득한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선출 되었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이다. 월도스님은 “그동안 종단간의 소통의 부재로 협의회의 사업에 힘을 모으지를 못했다. 회장단과 상임이사, 이사 종단간의 메신저가 되어 화합된 종단 협의회가 되기를 노력 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회의가 모두 끝난 후 홍파스님은 “지난 30여년동안 종단협의회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의 소임을 맡아보면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항상 배려와 용기를 주신 많은 스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미려한 힘이나마 불교의 발전을 위해 전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며 사무총장에서 물러나는 소감을 밝혔다.

불기2559년 연등회는 광화문강장에서 열릴 예정인 “광복 70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각 종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결의했다.

하림각=김종열 기자

총기43년 총지종 종단 정기감사

3월 11-12일 양일간 통리원에서



▲총지종 사감원 정기감사 모습

불교총지종 사감원(원장 법상인)은 총기 43년 종단 기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에는 사감위원 정원심 전수, 안성정사, 승원 정사, 도현 정사가 참석했다.

이번 정기 감사는 총기43년 통리원, 유지재단, 사회복지재단, 법장원, 밀교연구소가 진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위원들은 예산 집행 등 회계처리,

물자 구매계약의 적정성, 인사처리, 종무원 복지실태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했다. 감사결과

다음 중앙총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통리원=이수협 계장

지 면 안 내

- 1면 상반기 49일 불공회향 / 총지종 종단 정기감사
- 2면 동해중학교장 인터뷰
- 3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의 정기총회
- 4면 파고다의 나라 『미안마』
- 5면 부처님이야기 / 칼럼
- 6면 서하보살의 불교문화산책
- 7면 2015 화쟁문화아카데미 종교포럼
- 11면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새로운 중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제(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보(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교감 김재근



김기자가 가다

종립 동해중학교 탁상달 교장 선생님 인터뷰

“중단의 발전과 교세확장에 힘을 보태드립니다”



▲ 동해중학교 탁상달 교장

지난해 9월 취임한 종립 동해중학교 탁상달 교장 선생님을 오랜만에 지면으로 모셨다. 선생님의 인생관과 교육철학을 중독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선생님 만나 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제 부산은 완전한 봄이군요? 3월 신학기를 시작하는 각오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총지중보를 통해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상의 큰 것이란 것은 늘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말없이 흐르는 물도 웅덩이를 채워야만 흘러가듯이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서두르지 않으며 차근차근 바른길을 걸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신을 먼저 내려놓으면 주변과 이웃도 보이고 세상도 조금씩 보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학교행정, 보이는 학교경영을 하려 합니다. 잠시 불편하더라도 오랫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은 언제부터 사도(師道)의 길을 걷고자 하셨는지요, 또한 동해중학교와의 인연은 언제 어떤 계기로 맺으셨습니까?

잠시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를 주셨군요. 초등학교 시절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최병준 선생님께서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장래희망을 조사하셨나 봅니다. 그 시절 선생님의 질문이 생각납니다. “애들아! 너희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면서 개인별로 기저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려서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선생님!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라고 되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선생님은 “네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집에 가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내일 대답해 줄게” 라고 하셨고 다음날 선생님의 대답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란다. 이를테면 선생님이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야” 라는 말씀을 해 주실 때 저는 나도 그거 할게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 한 번도 장래희망을 교사라는 직업을 지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해중학교와의 인연은 1990년 과거 제 2대 교장이셨던 김병준 전 교장 선생님 추천으로 동해중학교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녘 동(東)과 참으로 인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출생지가 그렇고, 출신학교가 그러하며, 사는 곳과 직장이 그렇지요.

동(東)의 의미는 해가 뜨는 곳으로 시작을 의미하고, 오행으로는 목(木)을 의미하며, 계절로는 봄을 뜻한다고 합니다. 물론 오색으로는 청(靑)을 뜻해 주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저는 동해중학교와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부산시인협회 회원으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시작 활동의 계기와 선생님의 대표작 한 수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늘 독서운동을 하면서 글을 쓰는 국어교사를 동경해 왔고 시인 국어교사라는 이름표가 아름답게 느껴져 2002에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2003년도에 전국 시조 백일장에 장원으로 당선되고 이어 문예지에 당선작이 선정 되면서 문인의 길을 걸어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글이 좋아, 문학이 좋아 글과 함께 했네요. 이름없는 무명시인이었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은 문학적 지식과 소중한 체험들을 모아 퇴직을 하면 책도 여러 권 낼 생각입니다. 살짝 귀뜸을 한다면 사찰순례 기행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 아직은 습작활동 중이니, 훗날 다음 세대가 이 작품은 그 분의 흔과 열이 담긴 대표작이다. 라고 듣고 싶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실행생활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모범적인 실행활동이라 할 것이 뭐 있나요? 스스로를 채근하여 주변과 이웃에 배려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행사 참석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수양과 자기정진 및 스스로의 봉사를 통해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많이 하려 합니다.

어떤 이는 때론 강할 필요도 있다고 주문하기도 하지만 저는 강하면 부러진다는 진리를 믿기에 불제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배려와 나눔의 실행활동은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몸 보시를 많이 하려 합니다.

최근에 부산불교문인협회 이사나 부산광역시 교사불자회 부회장직을 흔쾌히 수락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적 교육관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소신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 몇 마디로 정리하기엔 무척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불교적 교육관이 행사에 취해 자칫 소탐대실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진정성으로 마음에서 마음이 열리는 인간 중심의 인성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선과 악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관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 근본 지침이듯이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선과 악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질서교육도, 인간교육도, 학문적 교육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말이란 행동이든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요즘은 책임을 질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 싶으면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책임성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러한 행동은 책임지는 자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좋은 교육관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자신부터 책임질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육관을 갖추고 싶습니다.

▶2015학년도 학교경영 구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신다면?

2015학년도에는 우리 동해중학교 교육가족 모두가 두 배로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성교육에서 2015년도에 2035년을 꿈꾸는 아이가 되도록 학생들의 인성교육지도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21세기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갖춘 지역체의 조화로운 앞날의 지도자로 말입니다.

둘째, 건강교육에서 학생들의 청결교육과 주변 환경 개선 실천으로 체력과 체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지도교육에서 기본 규칙 준수 철저와 기본생활 습관 형성 실천으로 폭력없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진로가 미래입니다.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습지도면에서 학생중심 활동의 교육실천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높이고 창의적 인간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섯째, 학교경영면에서 동해중학교 발전 T/F 팀을 구성하여 동해중학교 장기 발전 전략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학습시스템으로 학생들의 개별화 지도에 최선을 다해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부모 협의회도 활성화 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렴하고 깨끗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학교의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시설개선에서도 노후 교사 수리 및 교사 도색 및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스포츠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공사 및 강당 증축, 운동장 정비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학습권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단의 발전과 교세 확장에 위해 적은 힘이나마 보태렵니다.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축제

불기2559년 부산 연등축제 조직위 결성법회

불기2559년 「부산연등축제」의 본격적인 준비를 알리는 결성법회가 봉행됐다.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 스님, 범어사 주지)는 3월6일 오후5시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연등축제 조직위원회 결성대회’를 봉행했다. 결성대회에는 회장 수불스님, 수석

부회장 무원스님, 총지중 정각사 주교 법상인 전수, 해광 정사, 종립 동해중 법선 정교, 신인록 신정회 부산.경남 지회장, 김윤경 만다라 합창단장,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실동근 동명대 총장,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 이영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

부의장, 김동열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부회장 등 부산지역 스님과 재가불자, 신행 단체장, 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장 수불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부산시민뿐 아니라 부산을 찾는 내외 관광객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산바람나는 전통 문화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원력을 모아 합심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무명에 갇힌 중생을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이끌어 주는 연등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결성법회에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연등제의 성공을 발원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산스님(흥법사 주지)은 올해 부산연등축제의 주요 행사와 계획을 설명했다. 심산스님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준비된 많은 행사를 축소 혹은 취소하고

실종자의 무사귀환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면서 “올해는 예년과 같이 아름다운 연등과 각종 공연, 다양한 체험 행사로 종교를 초월해 부산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5월1일 송상현 광장에서 연등축제 상징물 점등식 및 등전시회를 갖고 봉축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5월2일에는 연등축제기념 제7회 전국 B-boy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5월11일부터 17일까지 용두산 공원에서 전통등 전시회를 갖는다.

또한 5월13일부터 24일까지 부산시립

용두산 전시관에서 고층에 입각한 전통등을 시민과 불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연등축제 연등행진은 5월17일 구덕운동장에서 봉축연합대법회 봉행 후 대청로와 근대역사관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진행된다.

불자뿐 아니라 시민과 부산을 찾는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신명나는 잔치가 될 전망이다. 또한 5월25일까지 2000여개 사찰이 부산의 주요 거리마다 봉축등으로 장엄하게 된다.

부산-통신원 김윤경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 천 사	이 복 남	3/10	10,000
	곽 노 선	3/10	20,000
	강 순 시	3/12	10,000
	이 희 권	3/12	10,000
관 성 사	황 성 녀	3/2	10,000
	인 선	3/23	20,000
	김 홍 조	3/24	10,000
	해 정	2/27	10,000
기 로	대 관	3/23	10,000
	밀 공 정	3/23	10,000
	법 수 원	3/23	10,000
	법 장 화	3/23	10,000
	법 지 원	3/23	10,000
	불 멸 심	3/23	10,000
	사 홍 화	3/23	10,000
	상 지 화	3/23	10,000
	수 증 원	3/23	10,000
	총 지 화	3/23	10,000
	선 도 원	3/23	10,000
	해 정	3/25	10,000
단 음 사	법 연 지	3/16	10,000
	덕 화 사	반 야 심	3/2

최임순	3/11	20,000
서동수	3/11	20,000
서해원	3/11	20,000
김정애	3/11	20,000
서은옥	3/11	20,000
이상준	3/11	30,000
정덕순	3/2	10,000
정정희	3/3	5,000
이기상	3/10	10,000
안옥진	3/10	10,000
이성수	3/10	10,000
이수연	3/10	10,000
이혜성	3/16	30,000
무명씨	3/9	10,000
양정현	3/4	10,000
양지현	3/4	10,000
심지장	3/11	10,000
김봉기	2/27	10,000
무명씨	3/4	10,000
정순득	3/13	10,000
김봉기	3/25	10,000
원봉	3/12	10,000

지선행	3/12	10,000
이순옥	3/3	10,000
정경자	2/26	10,000
정우석	3/12	10,000
박병성	3/13	30,000
이순영	3/13	30,000
무명씨	3/13	10,000
반야화	3/25	100,000
일원어린이집		
김지영	2/26	10,000
하재희	2/26	30,000
서선숙	2/26	10,000
이지민	2/26	10,000
강경화	2/26	10,000
김용미	2/27	10,000
박문실	2/27	10,000
구미자	3/2	10,000
천소영	3/12	10,000
권향덕	3/25	10,000
이향례	3/25	10,000
이준동	3/25	10,000
강경화	3/25	10,000

이현직	3/25	10,000
김지연	3/25	10,000
김지영	3/25	10,000
이재은	2/26	10,000
법계월	2/26	200,000
지성	3/12	10,000
승효제	3/12	10,000
허성동	3/20	30,000
초록어린이집		
이은주	2/27	10,000
황화성	3/25	30,000
법등	3/2	30,000
이인정	3/16	30,000
손경옥	3/21	19,868
최영례	3/20	10,000
강순란	3/3	10,000
교도일동	3/5	100,000
지정	3/12	20,000
원정연	3/3	20,000
원정연	3/13	20,000
김갑선	3/19	10,000

2월26일부터 3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종조법설집』 윤독회 제3차 모임 개최

밀교연구소(소장 법경 정사)는 지난 3월 20일 영천 단음사에서 『종조법설집』 윤독회 제3차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종조법설집』 가운데 「교상과 사상」 편의 ‘현밀이교(顯密二敎)’의 차이점에 대한 윤독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모임에서 법경 밀교연구소장은 “현밀이교의 해석은 일본 진언종의 공해 홍법 대사가 저술한 ‘변현밀이교론’에 의한 설명으로 일본식 해석일 뿐 인도밀교를 온전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수나라의 천태 지의대사가 판석한 오시팔교의

비밀교와 현로교의 교상판석을 잘못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날 모임은 현밀에 대한 회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주를 이루었다. 다음 모임은 5월 2일 대구 제석사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불기2559(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4.29(수) 광화문 점등식...5.15(금)~17(일) 연등회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오는 5월 25일(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표어로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을 선정 발표하였다.

올해 봉축 표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로 모두가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염원하고 화해와 자비의 향기가 넘치는 세상(사회)을 구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가정과 사회의 갈등은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반성과 회향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평화와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봉축행사는 4월 29일(수) 광화문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5일(금)~17일(일) 서울 조계사 우정국로와 중로,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되는 연등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 된다. 그 외 각 지역과 사찰에서도 다양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진행된다.

'2015 연등회' 행사 및 일정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봉축점등식	4월 29일(수)	광화문광장
전통등전시회	5월 15일 (금) ~ 5월 26일 (화)	조계사, 천계천,봉은사
어울림 마당	5월 16일 (토)오후 3:30 ~	동국대학교 운동장
연등행렬	5월 16일 (토)오후 6:00 ~	종로거리(동대문 → 광화문광장)
회향한마당	5월 16일 (토)오후 9:30 ~ 11:00	광화문광장
전통문화마당	5월 17일 (일)낮 12:00 ~ 오후 7:00	조계사 앞 길
공연마당	5월 17일 (일)낮 12:00 ~ 오후 6:00	조계사 앞 길
연등놀이	5월 17일 (일)오후 7:00 ~ 9:00	인사동 ~ 조계사 앞 길
초파일법요식	5월 25일 (화)오전 10시	조계사와 전국의 사찰
관등의식	5월 25일 (화)오후 7:00	조계사와 전국의 사찰

인터넷 충지정보 www.chongjinews.com

불기2559(2015)년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제35차 정기총회



▲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정기총회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 정기총회가 3월 10일 오후 1시30분 하림각에서 열렸다.

사무총장 법등 정사(총지종 통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개최 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 변경 보고의 건, 2014년도 감사보고의 건, 2014년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의 건, 2015년 회비인상(안)의 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의 건 및 기타 안건의 순으로

토의 심의 하였다.

2015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제3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화성 용주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 측 100여명과 일본 측 7-80명이 참가 할 예정이다.

특별사업으로 양국불교계에서 제31차 한일불교문화교류 연력사대회에서 일본 고덕원 경내에 있는 관월당을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양국의 사정상 지연되어 왔으며 이를 다시 추진하여 기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사업이다.

신규사업으로는 제1차 청소년 교류사업을 계획했다. 우선 양국의 각 종단 소속 학생부 또는 중립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들의 건전한 성장과 우호증진을 위해 청소년 교류 사업을 재개하는 사업이다. 협의회는 총 4억 3천 5백 9십만원의 예산을 확정 했다.

군인정신과 불자정신으로 부처님 제자답게

국군불교 총신도회 창립 제15주년 기념 대법회 봉행



▲ 국군불교 총신도회 창립법회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김현집 장군)는 3월 13일 오후6시 육군회관 태극홀에서 ‘창립 제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군불자의 신심 증강과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서원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 총지종 통리 원장 법등정사, 김현집 국군불교총신도 회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국군불교총신도회는 1971년부터 1972년 사이 결성된 육·해·공.

국방부 불교신도회 를 모체로 지난 2000년 2월25일 전군 전 현직 군 불자와 가족들이 ‘전 장병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포교하라’는 기치 아래 출범한 군 불교 실행단체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헌화, 유공자 포상, 대화사, 축사, 법어, 발원문, 군불총 추진경과 및 발전방향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유공자 포상 및 감사패 수여를 정안호 해군 1함대 사령관과 공군 보라매 법당 강욱경 불자가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김현집 군불총 회장은 봉행사에서 “우리 군 불자들은 이 자리를 빌어 군 불교를 새롭게 중흥 시킨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견지하고 군인정신과 불자정신으로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가길 다짐한다.”며 “이를 위해 정기·순회 법회, 간부불자 수련회, 호국 기도회 등을 활성화해 불자들의 불심을 증강 시키고, 군 법당 간부 불자 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자 상호간 유대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법문에서 “삶은 자신이 만들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나를 찾는 수행에 소홀함 없이 수행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군불총의 앞날에 부처님 자비가 깃들길 바라고, 젊은 장병 포교에 집중해 달라”고 군불총 창립 15주년을 축하의 서원을 했다.

육군회관=김종열 기자



불교총지종 교도복지시설 희락원 입소안내



불교총지종이 교도들의 평생복지를 실현하고자, 새로 운영하는 성남 교도복지시설 희락원이 준공 되었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신행생활과 함께 노후를 보내실 총지종 교도들의 입주를 기다립니다. 서울·경인 교도들 중 65세 이상으로 ‘오세대제도’를 성만 하신 분과 입교20년 이상인 총지종 교도는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총지종 시회복지재단의 내부 심사에 통과 하여야 합니다.)

-교도복지시설: 성남 법천사 내, 3층 총 15실
-입소인원 : 1인 1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부부는 1실 2인 입주가능)
-편의시설: 공동세탁실, 공동목욕탕, 공동취사시설 및 1일 3식 제공
*매월 소정의 공양 준비금은 따로 납부합니다.

문의 각 사원 주교 및 총지종 통리원 전화) 02)-552-1080



▲ 개별화장실



▲ 공동목실



▲ 공동주방



▲ 생활공간

파고다의 나라 『미얀마』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한 끝없는 저항의 역사



▲ 미얀마 불탑

이번호에서는 화령 정사의 미얀마불교 수행을 한번 쉬어면서 미얀마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소승불교의 상징이자, 위빠사나 수행의 본고장인 미얀마를 한번 둘러보자.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렇듯이 미얀마도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다. 미얀마족이 72%를 차지하고, 카렌족(Karen) 7%, 카친족(Kachin) 2% 등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용어로 미얀마어를 사용하고 종교는 불교가 86%로 압도적이고, 소소의 이슬람교 4%, 힌두교 4%, 기독교 2% 등이다. 기후는 대체적으로 열대계절풍 기후이나, 고도가 높은 곳은 온대성 기후를 나타낸다.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농산물가공업과 광산자원을 활용한 중화학공업 등의 육성을 공업화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다.

쌀·티크·목재 이외 원유·주석·연·아연·동·석탄 등이 풍부한 동남아 굴지의 자원국이다.

1962년 혁명정부에 의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채택된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72년부터 자유주의적 제도를 일부 도입한 뒤 외자도입과 쌀 증산 성공 등에 힘입어 1977년부터 현저한 회복 기조를 보여왔다. 2007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135억 달러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444 달러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끝없는 투쟁의 역사

미얀마의 역사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종족의 이동의 역사이다. 미얀마에는 서력기원을 전후하여 인도로부터 농업기술과 불교·힌두교가 전하여졌고, 이후 몬족·모족·미얀마족이 차례로 흥기하였다.

18세기에는 몬족이 다시 미얀마족을 정복하였으나, 곧 미얀마족이 다시 전국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때까지 '다고웅'이라고 불리던 도시를 '영군'으로 개명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 미얀마는 점차 영국의 침입을



▲ 미얀마지도

평화적 정권교체 열망으로 우 산유(USanYu)에게 대통령직을 이양하고 당의장직만 보유하였으나, 카리스마적 지도력으로 계속 실권을 장악해 왔다. 1988년 네윈의 사임을 요구하는 학생폭동이 일어난 4,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해 소웅 장군에 의한 쿠데타로 반정부운동 세력이 제압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다. 아웅산 수지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있고, 동구권과의 협력관계도 유지해 왔다.

한국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1961년 8월 미얀마와 영사관계를 수립하였고, 1962년 9월 총영사관을 개설하였다. 1975년 5월 16일 정식으로 수교하였으며, 2007년 현재 상주 대사가 주재하고 있다. 1983년 10월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를 공식 방문한 적이



▲ 웨다곤 파고다 입구

(주)대우, 현대종합상사, 효성, 세계물산 등 70여개 업체가 진출해 있다.

양국의 문화교류로는 1983년 10월 우리나라 민속예술단의 미얀마 방문공연이 있었고, 1985년 2월 우리나라 상무(尙武) 축구단의 방문 친선경기와 1986년 3월 우리나라 태권도 시범단의 방문행사 등이 있다. 제24회 서울올림픽에는 7명의 미얀마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한편, 북한은 1975년 5월 16일 미얀마와

86%의 국민이 불자로 구성된 동남아 굴지의 자원국 비민주화가 발전 걸림돌... 우리나라와 1961년 수교

받아 쇠락해갔고, 1885년 마침내 영국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1886년 영국령 인도에 편입되었다가 1937년 인도에서 분리되어 영 직할령이 되었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1948년 1월 4일 영연방으로부터 탈퇴하여 완전독립을 선언하였다. 1962년 3월 네윈(NeWin) 장군의 쿠데타로 1948년 이후 집권해 온 우누(UNu) 정권이 전복되었다. 네윈 혁명위원회 의장은 군사혁명정권을 수립하고 삼권을 장악하였고, 그 뒤 미얀마사회주의계획당을 결성하고 사회주의헌법의 제정을 거쳐 1974년 민정이양을 실시하였다.

1981년 11월 네윈 대통령은 건강악화 및

현재 1992년 4월 집권한 탄쉐(Than Shwe) 국가평화발전위원회 의장이 장기집권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헌법을 제정하였다. 대외적으로 중도중립을 표방하며, 1948년 유엔에, 1992년에 비동맹회의에 가입하여 순수 비동맹 입장중립주의를 기조로 독립자주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초강대국에 대한 불신감으로 미국·소련(지금의 러시아)과의 관계는 일정거리를 유지한 반면, 지정학적 이유로 대중국관계를 최고의 외교 문제로 중요시해 왔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은 일본·서독·오스트레일리아 등과의 실질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웅산 암살폭발사건이 일어나 우리나라 정부요인이 희생당한 적이 있다.

양국은 1964년 6월에 무역 협정, 1972년 1월에 뉴스교환 협정, 1978년 1월 항공운수 협정, 2002년 2월에 이종과세방지 협정, 2006년 9월에 항공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수출액은 2008년 현재 2억 9198만 달러로 주종목은 직물·기계류·목재 등이고, 수입액은 8068만 달러로 주종목은 원목과 철광 등이다.

1981년 현대건설이 7500만 달러 상당의 미얀마 최대의 댐공사를 수주한 이래 우리나라 기업의 미얀마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2007년 현재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아웅산암살폭발사건 이후 미얀마 정부가 1983년 11월 북한 정부 승인을 취소하고 공관원의 철수를 요구함에 따라 1983년 11월 4일 양측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이후 2007년 4월 26일 국교가 재개되어 2007년 현재 상주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다.

양측은 1977년 9월에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기본협정, 1978년 2월에 항공운수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1983년 미얀마의 대 북한 단교 이후 모두 폐기되었고, 2007년 4월에 복교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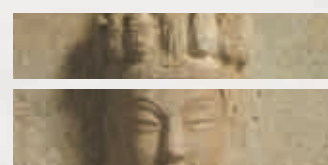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구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곁고루 건져주시네”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훴의 의미와 수행법



미녀도(美女)도 추녀(醜女)도



석존께서 영취산에 있을 때 일이다. 왕사성에 ‘벵 케라는 창부가 하나 있었다. 이 여자의 아름다운 것은 다른 여자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나 어디를 찾아 봐도 그녀보다 뛰어난 절색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미모에 대한 소문은 사방팔방으로 퍼져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는 ‘나는 이다지도 어여쁘까? 이 아름다운 몸을 버리고 나는 왜 수도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아니다. 이만큼 어여쁘면 얼마나 행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수도자가 되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오던 길을 되돌아간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때 영취산에 있으면서, 이제

인의 자태에 매혹되어, 이와 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예, 저는 성중에 있는 몸인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혼자서 참으로 쓸쓸합니다. 뭐 방해가 안 된다 면 동행하실 수 있는지요.” 두 여인은 곧 친해져서 함께 산을 내려왔다. 도중 샘가를 지나서 같이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여인은 피곤한 듯 땀의 무

역시 부처님께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야 겠다.”고 결심한다.

그녀는 발견에도 가볍게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는 산으로 올라 몸을 엎드리고 이제 까지 일어난 일의 차조지종을 말했다.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비에 넘치는 눈동자로 그녀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하는 네 가지 사실을 말했다. 그것은 첫째 청년이나 장년이나 반드시 늙는다는 것과, 둘째 아무리 건강한 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셋째 형제자매가 모여 즐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헤어 질 때가 온다는 것, 넷째 아무리 부자라도 그 부귀는 언젠가는 그의 곁을 떠난다는 사실 등이다.

렐게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 몸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과 깨달음만이 영원한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처님 앞에 나가서, 비구니가 되기를 청했다. 부처님이 이를 허락하자 그녀의 검은 머리는 갑자기 떨어져서 수도자의 몸으로 변해 마침내 수행을 쌓아서 아라한이라는 지위에 올랐다

*아라한: 사람들로부터 공양과 존경을 받을 만한 경지에 도달한 불제자의 지위

가르침과 깨달음만이 영원한 법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연한 일로 신심을 일으켜, 세상의 모든 번거러운 일에서 벗어나 불도의 올바른 수도자가 되고자 하였다. 작심을 하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영취산으로 떠난다. 도중에 맑은 물이 흐르는 강에 다다랐을 때, 물을 마시고자 몸을 기울이자 너무도 아름다운 자태가 물에 비쳐 그만 자기 자신에 반해 버렸다. 반짝거리는 두 눈, 우뚝 선 코, 붉은 입술, 빛나는 얼굴색, 탐스런 머리카락, 알맞게 찢 살, 균형 잡힌 자태 등등 어디를 훑어보더라도 흠 잡을 곳이 없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육체이었다.

그녀는 물빛에 그려진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고

막 씩이 트기 시작한 그녀의 신심을 복돋아 주는 것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신통력을 부려 그녀보다 몇 천 만 배나 더 아름다운 절세미인으로 몸을 바꾸어서 그녀의 돌아가는 길을 앞질러서 기다렸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렐게는, 이세상의 즐거움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낮은 절세미인과 맞부딪혔다.

렐게는 “처음 뵈니지만, 님은 혼자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주인과 같이 가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자네분이나 형제분들도 안 데리고 언제 혼자만 이렇게 나오셨는지요?” 렐게는 처음 보는 이 아름다운 여

를 베게로 삼고 얼마 안가서 잠이 들어버렸다.

일찍 보자, 그녀는 숨이 끊어지고 곧 그녀의 시체는 점점 썩어가면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코를 찌를 듯한 악취와 함께 가족은 터져 창자가 나타나고 구더기가 꿈틀 꿈틀 기어 나왔다. 머릿털은 벗겨지고 이는 뽑혀지고, 손발은 흩어져서 참으로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흉한 형태로 변했다.

렐게는 무시무시하게 변해버린 추한 행태를 눈앞에서 보고 새파랗게 질려서 “이와 같이 절세의 미인도 죽으면 이같이 흉한 꼴이 되니, 나 같은 사람도 언제까지나 미인으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데스크 칼럼

이모부의 장례식과 타종교 선교

지난 주말에 어머니 바로 윗 형제인 이모님의 든든한 남군이 세연을 다 하시고 소천 하셨습니다.

나의 외가는 경남 고성에 자리를 잡았던 인동 장씨와 합천이씨의 혈족들이다.

외조부모님은 슬하에 3남5녀를 두셨고, 나는 8남매의 막내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니 외가의 손자들 중에서는 맨 막내인 셈이다.

이번에 소천 하신 이모부는 평생을 군인과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 봉직했다.

어릴 적 들은 얘기로는 진해에 있는 덕산 비행장에서 해병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입대했다한다.

이모부는 어린 시절 일본에서 자라고, 고등교육을 받아서인지 말끝에는 언제나 일본 발음이 남아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과 6.25 전쟁, 5.16등을 거치면서 군 생활의 대부분을 야전에서 보냈다.

물론 조금이라도 정치적 야망이 있었더라면 당시에 훨씬 나은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모부님의 슬하에는 딸만 다섯을 두었다. 모두

출가하여 손자를 생산하였으니 자손 복은 많은 셈이다.

빈소에 들러 향을 올리고, 마지막 인사를 올리려고 이모부님의 영정을 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프란치스코’란 천주교 세례명이 이모부님의 이름과 나란히 모셔져 있었다. 평소에 즐겨 절을 찾았고, 이모님도 여러 큰스님의 법문을 테이프로 들으시던 모습이 나의 기억 속에 생생하기에 순간 혼란스러웠다.

상주들과 인사를 마치고, 집객실에 앉아

오랜만에 만난 사촌들과 안부를 나누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소 불자로 알았는데 이모부님이 언제부터 천주교인이 되셨는지 물었더니, 딸 다섯 중 셋이 천주교이고, 나머지 둘은 기독교와 불교란다.

이모부님은 평소 성당을 다니며 선행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큰 누이의 제안으로 임종직전 종부 성사를 받고, 세례명을 받았다. 천주교의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필요한 순간 조직적으로 장례를 도와주고 남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성당에 나오도록 하는 구조였다. 자기의 주조지

어느 성당에 연락을 하여도 ‘요셉회’ 등 조직들이 돌아가며 기도하고 작은 돈이지만은 부의도 각자한다고 한다.

가장 필요한 순간 도움을 주고 선교하는 것이다.

물론 불교에서도 이런 조직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스님이 와서 영가 축원을 하고 독경을 하면, 가족들은 49재의 비용부터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형편과는 어울리지 않는 재를 올리려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영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된 것이다.

우리 종단을 비롯하여 불교TV 등지에서 상조회의 이름으로 불교식 장례 정착에 힘쓰고 있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상업적인 목적은 뒤로 접어두어야한다.

가장 종교적이고 거룩한 의식으로 장엄하여 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식이 되었으면 한다.

비록 나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우주법계 인드라마의 법식으로 연결된 영가라 생각하면 내 부모, 내 형제나 다름없다.

한편 이번 일로 사람이 죽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선교의 기회로 만드는 이웃 종교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 으로 이모부님의 극락왕생을 서원한다.

편집장=김종열

왜 천도불공을 올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장례와 49재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 방 정 토 극 락 왕 생 을 위 한 천 도 불 공 안 내 서 !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 * 임종 시에 불공을 해드려야 하는 이유
- * 재(齋)란 무엇인가?
- * 49재의 의미, 유래와 근거
- * 49재를 행하는 이유
- * 49재는 어떻게 행하는가? (절차와 방법)



법공 종사 · 법경 대정사 共著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비매품/ 59쪽
구입문의 : (02) 552-1080~3

서하보살의
불교문화산책내 안의 다른 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인간의 이중성 파헤쳐, 내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17~19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4~26일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

5월 1~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5월 9~10일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 드라마 '킬미 힐미'

요즘 문화계 방송계에는 다중인격이 유행(?)이다. 한국 공연 10주년 기념 공연이 한창 진행 중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그렇고, 최근 종영한 드라마 '킬미 힐미' '하이드 지킬, 나'가 그렇다.

왜 사람들은 다중인격에 호응하는 걸까? 요즘 현대인들은 결정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과 불안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 온갖 정신과적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보다 더 과다한 정보의 홍수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82%가 스스로를 다중인격인 것처럼 느낀다고 답했다. 다중인격이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한테서도 '그런 것 같아' 동조를 느끼는 현상이기 때문에 더욱 열광하는 것이다.

최근 뉴스를 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이중성이 더욱 적나라한 민낯을 드러낸다. 이중성이란 하나의 사물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가질 때 쓰는 말이다.

부모 앞에선 천사 선생님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악마 같았던 어린이 집 교사도 그렇고, 죄인을 벌하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길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도 그렇다. 범죄로 이어지지 않아도 두 얼굴을 지닌 사람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니, 그러한 이중성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 요즘 세대다. 생존을 위해 그때그때 가면을 바꿔 써야 하는 현대인의 삶. 다중인격장애의 다른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랴 설명할 수 있을까.

이처럼 선악으로 나뉘어 드러나는 '내 안의 다른 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서 만나보자.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원작은 1886년 출간된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Dr Jekyll and Mr Hyde)>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로 원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로 번역 발간됐다. 아마 이들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선과 악을 대표하는 이중인격자의 이야기는 여러 차례 뮤지컬 영화 드라마로 변주됐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비롯해 만화 드라마 영화로 만들어진 '헐크', 만화와 영화로 제작된 '젠틀맨 리그', 영화 '아이덴티티' 등이 <지킬박사와 하이드씨>를 각색하거나, 모티브로 삼은 작품들이다. 얼마 전 종영한 우리나라 드라마 '킬미 힐미' '하이드 지킬, 나' 역시 같은 계열이다. '킬미 힐미'는 이중인격을 넘어서 무려 7개의 인격을 다루고 있다. '하이드 지킬, 나'에서도 3개의 인격이 드러난다.

원작 소설은 변호사인 찰스 어터슨이 그의 오랜 친구인 헨리 지킬 박사와 사람을 혐오하는 에드워드 하이드의 괴상한 관계에 대한 조사를 담은 단편소설이었다.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출간된 일종의 호러 스릴러물이었다. 출간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선정적인 싸구려 취급을 받았다.

1931년 영화로 제작되어 인기를 끌었던 '지킬 앤 하이드'가 뮤지컬로 무대에 오른 건 1990년의 일이다. 작곡가인 프랭크 와일드 혼이 1980년 뮤지컬 기획을 시작했다.

당시 역사와 철학을 전공하던 대학생이었지만 인간의 본성과 이중성을 탐구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에 매료됐던 것. 독학으로 곡을 쓰기 시작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기 시작한 와일드 혼은 1980년대 후반 작사가이자 대본을 맡은 레슬리

브리쿠스를 만나면서 뮤지컬을 완성해낸다.

1990년 미국 휴스턴의 옐리 극장에서 초연했을 당시 이미 17곡의 노래가 담긴 앨범이 먼저 제작되어 있었고 이후 브로드웨이에 오르기까지 여러 곡이 침묵하며 운명을 달리했다고 한다.

브로드웨이 폴리머스 극장에서 공연한 것은 무려 7년 후다. 1997년 4월 드디어 브로드웨이에서 선을 보였고, 초연의 주인공 로버트 쿠퍼는 드라마 데스크상과 비평가협회상 남우주연상을 휩쓸고 토니상 후보에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류정환, 조승우 등의 공연이 레전드로 불린다. 전 세계를 통틀어 지금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로 불리는 작품이 됐다.

뮤지컬 장르에서는 보기 드문 스릴러물이고,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상반된 인격을 지닌 지킬과 하이드, 그를 사랑하는 엠마와 루시가 등장해 아름답지만 슬픈 로맨스를 그려낸다.

영국 런던의 저명한 젊은 의사 헨리 지킬은 정신 분열증을 앓는 아버지를 위해 인간의 본성을 나눌 수 있는 약을 만들고자 한다. 지킬은 성 주드 병원 이사진에게 자신의 약물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피험자를 요구하지만, 반인륜적인 실험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자신을 피험자로 쓰게 된다.

지킬이 하이드로 변신하는 실험을 계속할수록 주변인들은 지킬을 걱정하며 염려하지만 지킬은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 지킬은 약물로 인해 하이드를 불러냈을 때의 기억을 못한다.

하이드는 점점 지킬 내면의 억눌린 욕망을 자양분으로 힘을 키우고, 지킬의 실험을 반대했던 배싱 스톡 주교를 살인한다. 지킬은 계속해서 악을

갈구하면서 점차 폐인이 되어 가고, 하이드는 계속해서 지킬의 실험에 반대한 병원 이사진을 모조리 살해한 것으로 모자라 지킬을 사랑했던 루시마저 죽여 버린다.

생체실험의 허가를 받지 못해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쓴 지킬은 자신 안에서 악인 에드워드 하이드를 분리시키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를 없애는 것은 실패한 채 결국은 자신이 사랑했던 엠마를 지키고자 자살을 선택한다.

뮤지컬을 이끌어가는 건 지킬과 하이드이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가장 격렬하고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는 건 당연히 남자주인공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초대 지킬 하이드역을 했던 뮤지컬 배우 류정환을 비롯해 조승우, 박은테, 조강현이 지킬 하이드 역을 맡아 열연을 선보인다.

뮤지컬 무대는 화려한 특수효과 대신 감미로운 음악과 감각적인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가 가득 채운다. '지금 이 순간'을 비롯해, 두 인격 사이에서 괴로워 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미워하긴 힘들죠' '대결' 등의 노래에서 격렬하게 표현된다.

특히 '대결'은 얼굴의 반은 지킬로, 다른 반은 하이드로 분해 목소리의 톤도 조절하며 부르는 주인공의 열연에 낮을 뻗길 수밖에 없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를 쓴 스티븐슨은 장로 교의 관습을 따르는 부모들에게 저항하며 자신은 보헤미안의 삶을 선택 했던 인물이다. 도덕과 종교 안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종교로 억압되어 있던 악이 누구에게나 존재 한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 스티븐슨은 자아 안에 살아 숨 쉬는 절대 선과 악을 구분해 내고자 노력하는 지킬이라는 캐릭터를 창조했다.

하지만 절대 선, 절대 악으로 인성은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선과 악이 혼재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본성이라는 것을 절대 악인 하이드를 제어할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하는 지킬의 모습으로 드러낸다.

'종교에 뿌리를 둔 가장 심오한 고뇌의 원천인 선과 악의 이중성. 이 가혹한 삶의 법칙에 대해 나는 깊이, 집념을 가지고 천착하게 되었다. 내가 뿌리 깊이 이중적이라 해서 위선적인가 하면 그건 전혀 아니다. 나의 두 가지 모습 모두 진실한 것이다. ...인간은 결국 여러 개의 모순되면서도 각기 독립적인 인자들이 모인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 중에서

선과 악의 이중성.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았을까. 불교는 일찍부터 이중성을 사물의 본질로 보아왔다. '범부가 곧 부처', '생사가 곧 열반', '번뇌가 곧 보리',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교리에서 불교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이 지니는 이중성은 문제의 출몰이 아니라 자연의 본질이자, 사물전체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여여(如如)라고 한다.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는 이분법적 사고를 떠나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는 것을 여실지견(如實知見)이라고 한다. 그대로의 것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그것을 흑백논리,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는 일반인들은 '여여'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킬 앤 하이드'를 봐도 그렇다. 내 안의 선과 악은 공존한다. 여여하다. 하지만 사람은 선과 악으로 양분하려 든다. 선이거나 악이거나 어떻게든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하도록 나누려고 하지만, 소설도 뮤지컬도 절대선과 절대악을 구분해내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절대선과 절대악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는 불이(不二)로써 이 이중성을 극복해낸다.

부처님은 "내 안의 불성을 찾으라."는 말씀을 하셨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듯이, 내 안의 불성과 무명에 뒤덮인 중생으로서의 나 역시 둘이 아니다. 무명의 업에 두텁게 쌓인 참나, 불성은 깨닫지 못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데도 찾아가지 못할 뿐이다.

찾으려는 생각조차 안하고,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믿음 또한 없기 때문이다.

원작소설에서부터 드라마건 영화건 다중인격의 이면에는 상처가 존재한다.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던 이들이 마음을 조각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상처에서 기인한다는 것.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할까.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하이드를 막을 수 없어 살인을 일삼았던 지킬은 속죄의 길로 하이드와 함께 죽는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헐크는 악인을 정벌하고 쓸쓸히 돌아서 스스로의 상처를 보듬는 것으로, '킬미힐미' '하이드 지킬, 나'의 남자주인공들은 연인의 사랑으로 상처를 이겨낸다. 상처를 치료하면 조각났던 마음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치유의 방법은 조각난 마음의 원인을 인정하고, 치유해서,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지킬 앤 하이드'의 배우들은 이런 말을 한다. "관객들에게 내면의 모습을 보여요라고 하는 것 같지만 무대에 서고 나면 자신의 본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생활에 지쳐 지금 내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뮤지컬 무대에 마음을 던져보자. 지킬과 하이드가 빚어내는 이중성의 고뇌에서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구성작가 강지연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한림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문의: 02-445-2326

2015 화쟁문화아카데미 종교포럼 제1회 “무엇이 걱정인가 - 한국불교의 ‘깨달음 지상주의’” 현장 스케치

종교에 흥미를 잃고 배타성 커져... 종교에 대한 학자들의 통렬한 비판



2월 28일, 화쟁문화아카데미(대표:고려대 철학과 조성택 교수)에서 제1회 종교포럼이 열렸다. 종교포럼 ‘종교를 걱정하는 불자와 그리스도인의 대화: 경계너머, 지금여기’는 제목만큼이나 각기 몸담고 있는 종교에 대한 걱정어린 비판들이 쏟아졌다. 백 명이 넘는 청중들이 강당을 꽉 채운 가운데, 종교포럼의 첫 폭지는 오강남 비교종교학자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그는 ‘화쟁을 저해하는 종교, 화쟁을 복돋아주는 종교’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통해 표층종교와 심층종교, 그리고 종교간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오강남 교수는 한국 겐립이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1984 ~2014(2) 종교 의식>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한국인들이 점차 종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한편, 각 종교간의 배타성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교간의 화해와 소통이 약화된 지금, 화쟁문화아카데미의 종교포럼과 같은 행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하였다.

결론에서 그는 “한국 종교인 절대 다수가 표층 신앙에 머물러 있다. 신앙생활이나 ‘나 중심’ 혹은 ‘우리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 이런 개인이나 집단 이기적인 표층 신앙 때문에 현재 종교계에 종교적 배타주의를 비롯해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표층 신앙에 함몰되어 생기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줄어들고, 더욱 많은 사람이 심층 종교가 줄 수 있는 생명력과 지원함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하여 한국 사회가 한층 밝고 아름다워지기를 기원해 본다”고 기조연설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성택 교수는 “오만과 편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깨달음이 불교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궁극적인 하나의

깨달음이 있으며 그것만이 진리라는 입장을 ‘깨달음 지상주의’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현대 한국불교의 깨달음 지상주의는 서구적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이 역으로 수입된 것이다. 특정한 심적 체험으로 국한되어버린 깨달음에 의해서 불교는 점차 세속화 유리되어 ‘불통’ 혹은 ‘은폐’되어 버린 신비주의적 종교라는 이미지를 갖게



나의 입장에서 깨달음의 체험이 종교의 가장 본질적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평하였다.

이어 “종교가 과도하게 개인 체험의 영역으로 환원된다면, 제도적인 종교로서의 역할은 무화(無化)되어 버릴 것이다”며, “깨달음의 특권화”가 미치는 폐단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기조연설자였던 오강남 교수는 “깨달음의 특권화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깨달음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반박하였고, 이에 대해 조성택 대표는 “오강남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종교를 체험만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종교의 사회성을 약화시킨다.

한국인의 절대 다수는 ‘나 중심’ ‘우리중심’의 표층신앙에 머물러 바람직 하지 못한 현상 속출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교신도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그는 “깨달음이란 수행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궁극적이고 제도적인 종교에서 개인의 체험, 특히 궁극적인 깨달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독단적인 오만이며, 수행의 일상성과 사회성을 도외시하는 편견”이라고 주장하여 불교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흥미롭게도 그는 오강남 교수와 성해영 교수가 심층종교로서 종교에서 깨달음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도 우러의 목소리를 건넸다.

조성택 교수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표층종교와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심층종교를 구별하는 근거에는 ‘체험’, 특히 궁극적 실재에 대한 깨달음의 ‘체험’이 종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사람의 합치된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며 “그 맥락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장래를 염려하는

이러한 “깨달음”의 문제에 대해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은, “깨달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깨달음 이 절대화되어 그것으로 위계와 차별이 생기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은 “불교에서 깨달음 지상주의가 문제라면 가톨릭의 문제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과도한 권력화에 있다”며 “항상 주류와 연합해왔던 가톨릭은 스스로의 역사를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깨달음에 관해서 그는 “깨달음 뒤에 행동할 수 있는 것인가? 행동하는 그만큼 깨달은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항상 수동적이었던 가톨릭은 세상을 바꾸고자하는 행동의 종교로 돌아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어지는 논의의 내용은 크게 “깨달음 이 종교의 핵심인가?”, “깨달음은 사회참여와 관계가 있는가?”, “기성 종교는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종교가 제도로서 중요한 것은 ‘체험하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체험된 것만이 진리라는 생각은 한국불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김진호 연구실장은 “특권화된 깨달음 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문제제기를 하려는 태도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며 “깨달음은 항상 새로워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지식이란 그것이 특권화되어 그 사회를 지배할 때 독선이 되고 아집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진 논의는 “깨달음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는가? 아니면 행동하는 만큼 깨달은 것인가?”라는 틀로 진행되었다. 김진호 연구실장은 깨달음을 ‘성찰’이 라는 용어로 환원하여 “조성택 대표는 성찰과 행동을 나누어서 보는 것 같지는 않다. 또한 행동을 동반하지 않은 성찰도 문제이지만, 한국 개신교 전통에서의 문제는 오히려 행동이 성찰을 동반하지 않아 생긴 것들이 많다. 잘못된 행동주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단계이다”라고 평했다.

김근수 소장은 “그리스도교의 입장 에서 체험은 도구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행동하는 그만큼 깨달은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하였다 조성택 대표는 “실천과 행동이 동의어는 아니다. ‘참여’라는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나 실천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깨달음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은 깨달음의 혁명성보다는 일상성이다. 특권화된 깨달음으로서는 실천이 어려워진다”고 보았다.

종교와 실천의 문제는 종교포럼의 목적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김근수 소장은 “한국 가톨릭의 모습은 극소수의 사회참여적인 흐름과 교단 내부에서 권력을 유지시키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후자가 전자를 압도한다”며 “이처럼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화는 가톨릭을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임을 지적 하였다.

김진호 연구실장은 “종교권력의 특권화 만으로는 개신교의 다이내미즘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 한국인의 종교성은 강했었으나 한국의 기성종교는 그러한 수요를 받아들여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종교는 자기 제도 안의 장치들을 돌리는 데 급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 세 종교의 ‘비박한’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비판해보고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평하였다.

조성택 대표는 “이제 어느 하나의 종교만이 주류종교를 외치는 사회는 지나갔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외치고 있는데 오늘날 필요한 것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닐까. ‘사회적 역할’이라는 거창한 말을 차치하고서라도 불교도 우리 사회의 가능한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내렸다.

각 종교전통에서 오랜 연구와 성찰을 거친 학자들답게, ‘깨달음’이라는 자칫 불교 외의 종교에서는 좁아 보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도 역사, 교리, 철학과 같은 이론적 영역부터 사회 문제와 사회참여, 제도로서의 종교와 신앙으로서의 종교까지 다양한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대화가 진행되었다.

조성택 화쟁문화아카데미 대표는 “각 종교에 속한 학자들이 자신의 전통에 대한 자기성찰과 비판을 가감없이 나눌 수 있는 보기 드문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며 “플로어에서 나왔던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까지 포럼의 일부로 녹여, 앞으로 기성종교가 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5 화쟁문화아카데미 종교포럼은 총 9회에 걸쳐 열리며, 제2회는 김진호 연구실장이 개신교의 배타주의와 타자의 악마화라는 또 하나의 목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예정이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서초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심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14)

태장계만다라의 네 번째 궁실(宮室), 『금강수원(金剛手院)』의 제존(諸尊)

지난호에서는 태장계만다라의 12대원(大院) 가운데 세 번째 궁실(宮室)인 연화부원(蓮華部院)의 존상(尊像)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화부원은 중대팔엽원의 왼쪽에 있는 궁실이며, 관음원(觀音院)이라 부르기도 한다. 관자재보살 계통의 제존(諸尊)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음원이라 부르며, 대일여래가 갖추고 있는 대자비(大慈悲)의 덕(德)을 나타낸다.

이번 호에서는 태장계만다라의 네 번째 궁실인 금강수원(金剛手院)에 등장하는 제존(諸尊)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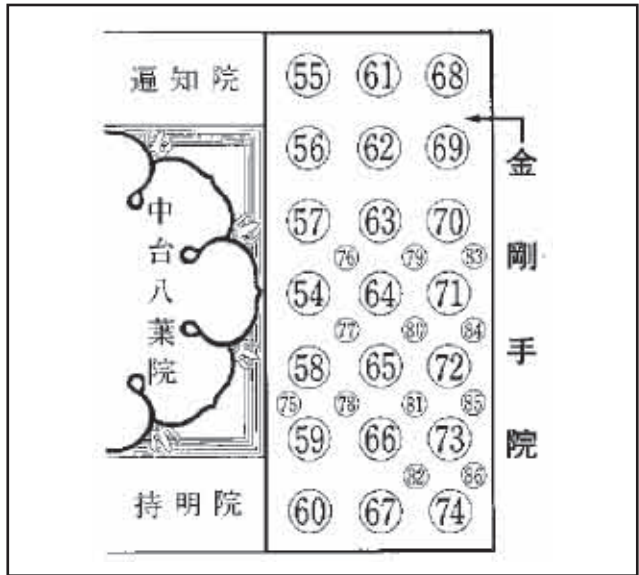
금강수원은 중대팔엽원의 오른쪽에 있는 궁실(宮室)이며, 왼쪽에는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연화부원(蓮華部院)이 있다. 즉 불부(佛部)의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좌우에 연화부와 금강부의 궁실이 배대되어 있는데, 이는 태장계만다라의 3부를 나타낸 것으로, 금강수원은 대일여래의 부처님의 덕성(德性) 가운데 대지혜(大智慧)를 상징하고 연화부원은 대자비(大慈悲)를 나타낸다.

금강수원(金剛手院)은 금강살타보살이 주존(主尊)이며, 이 보살을 금강수보살이라고도 하므로 금강수원이라 이름한 것이다. 금강살타가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살타원(薩埵院)이라고도 한다.

금강수원은 대일여래의 부처님의 덕성 가운데 대지혜를 상징하고 연화부원은 대자비를 나타낸다

금강수(金剛手)는 손에 금강저(金剛杵)를 들고 있다는 뜻이며, 바로 금강살타를 가리킨다. 그래서 금강살타를 집금강(執金剛), 지금강(持金剛)이라 번역한다.

이 금강(金剛)은 보리심이 견고하여 부서짐이 없다는 뜻이며,



▲ 〈그림1〉 금강수원의 구조와 제존

- | | |
|--------------|------------|
| 54. 금강살타 | 71. 금강아보살 |
| 55. 발생금강부보살 | 72. 이희론보살 |
| 56. 금강구녀보살 | 73. 지묘금강보살 |
| 57. 금강수지금강보살 | 74. 대륜금강보살 |
| 58. 지금강봉보살 | 75. 금강사자 |
| 59. 금강권보살 | 76. 금강사자 |
| 60. 분노월염보살 | 77. 금강군다리 |
| 61. 허공무궁금강보살 | 78. 금강구녀 |
| 62. 금강뇌지금강보살 | 79. 금강사자 |
| 63. 분노지금강보살 | 80. 대력금강 |
| 64. 허공무변초월보살 | 81. 금강동자 |
| 65. 금강쇄보살 | 82. 손파 |
| 66. 금강지보살 | 83. 금강사자 |
| 67. 지금강리보살 | 84. 금강권 |
| 68. 금강륜지보살 | 85. 금강사자 |
| 69. 금강설보살 | 86. 금강왕보살 |
| 70. 역열지금강보살 | |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라는 이치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중생이 수행을 통하여 대지혜를 일으키며 이로써 번뇌가 곧 깨달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뜻에서 금강살타는 왼손에 방울을 쥐고 오른손에 금강저를 권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태장계만다라에서는 금강살타가 방울을 지니지 않고 금강계만다라의 금강살타는 방울과 금강저를 지니고 있다.

금강살타는 대일여래의 대지혜(大智慧)를 관장하며, 연화부원(蓮華部院)의 대자비(大慈悲)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금강살타의 지혜는 미혹을 끊으며 자비와 함께 불가분리(不可分離)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대일여래의 자비와 지혜로서 중대팔엽원의 우측과 좌측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금강수원은 지혜를 상징하는 금강의 무기로서 온갖 장애를 최파하여 보리를 증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강살타의 존상은 〈그림2〉와 같다. 금강살타는 또한 대일여래로부터 밀교의 법을 전수받은 제2조로 불리며, 대일여래의 교령(敎令)을 실천하는 밀교의 중심되는 보살이다. 그래서 금강살타가 상수보살로 되어 있다.

이 금강수원에는 33존이 있는데, 금강살타를 위시하여 21존이 있고, 21존 사이에 작은 존상으로 12의 사자(使者)가

배치되어 있다. 금강수원에 나오는 33존의 근거는 『대일경』의 「구연품」과 「비밀만다라품」, 「밀인품」, 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금강수원의 구조와 제존(諸尊)은 〈그림1〉과 같다.

금강수원에 등장하는 존상을 모두 열거할 수 없고 지면 관계상 일부만 소개한다. 금강수원에는 금강살타를 비롯하여 금강구녀보살, 금강수지금강보살, 지금강봉보살, 금강권보살, 분노월염보살, 허공무궁지금강보살, 금강우지금강보살 등이 있다. 이름에 공통적으로 ‘금강수’나 ‘지금강’이 들어가 있으므로 금강수원에 속하는 보살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주존(主尊)인 금강살타는 앞에서 충분히 살펴 보았으므로 생략하고, 금강수원의 제1존인 발생금강부보살(發生金剛部菩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이 보살은 금강부발생이라고 하며, 금강부의 제존(諸尊)을 발생시키는 보살이다. 그래서 금강수원의 제1존이다. 손에는 독고저(獨鈷杵)를 쥐고 있는데, 보리심을 나타낸다. 손모양은 선정인(禪定印)을 하여 천의(天衣)를 걸치고 적연화(赤蓮華)에 앉아 있다. 선정을 통하여 지혜를 일으키고 지혜의 독고저로써 일체 번뇌망상을 없앤다는 의미다. 발생금강부보살의 존상은 〈그림3〉과 같다.

금강구녀보살(金剛鉤女菩薩)은 제불보살(諸佛菩薩)을 모두 만다라로 끌어 들이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보살이 있음으로 해서 금강수원에 제존(諸尊)이 배치된다. 그래서 이 보살의 존명(尊名)에 금강구(金剛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구(鉤)는 갈고리를 뜻하는데, 갈고리으로써 일체 불보살을 끌어들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총지중에서 행하고 있는 구소법(鉤召法)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동일한 의미로 일체중생을 갈고리으로써 끌어 들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금강구녀보살은 왼손에 금강구(金剛鉤)를 들고, 오른손은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있다. 금강구로 끌어들이고, 여원인으로써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강구녀보살의 존상은 〈그림4〉와 같다.

금강수지금강보살(金剛手持金剛)도 존명(尊名)에서 익히 알 수 있듯이 금강수원에 속하는 보살임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금강수(金剛手)와 동일한 의미의 지금강(持金剛)이 중복되어 붙여 있기 때문이다. 둘 다 ‘금강저를 손에 권 자라는 의미로서 모두 금강살타의 이명(異名)이다. 같은 의미의 두 단어를 합하여 존명(尊名)으로 삼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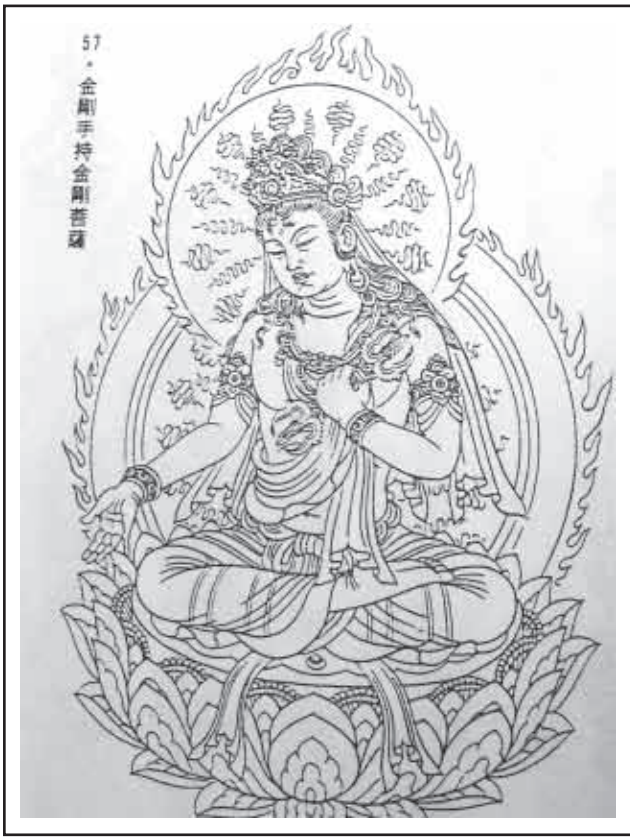
▲ 〈그림2〉 금강살타



▲ 〈그림3〉 발생금강부보살



▲ 〈그림4〉 금강구녀보살



▲ 〈그림5〉 금강수지금강보살

아마도 ‘중다(衆多)의 모친(母親)’이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불리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다(衆多)의 모친(母親)’이란 금강살타를 비롯한 금강부의 제존(諸尊)의 모친이란 뜻으로, 금강수지금강보살이 금강수 계통의 보살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보살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두 이름이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보살은 삼고(三鈷)의 금강저(三鈷杵)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여원인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혜를 나타낸다. 금강수지금강보살의 존상은 〈그림5〉와 같다.

지금강봉보살(持金剛鋒菩薩)은 존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금강봉을 지닌 보살이다. 금강의 봉(鋒)은 끝이 날카로운 창(槍)을 의미하며 대지혜를 나타낸다. 『대일경』 「구연품」에서는 이 보살을 ‘대도(大刀)를 지닌 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관장(灌頂)을 받는 수행자를 가지(加持)하여 만다라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금강봉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금강권보살(金剛拳菩薩)은 용맹정진을 관장하는 보살로서 십자형의 독고저(獨鈷杵)를 지니고 금강지혜로써 삼독(三毒)의 번뇌를 격퇴시킨다. 십자독고저(十字獨鈷杵)는 금강의 지혜를 의미한다.

이 십자독고저를 갈마금강저(磨磨金剛杵)라고도 하는데, 갈마(磨磨)란 작업, 행위, 활동, 작용 등을 말하며, 번뇌를 없애는 용맹정진을 이 보살의 작용과 활동에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왼손은 금강권을 하고 오른손은 십자독고저를 지니고 있다. 모두 지혜를 상징한다.

분노월염보살(忿怒月 瞋菩薩)은 항삼세명과 같은 성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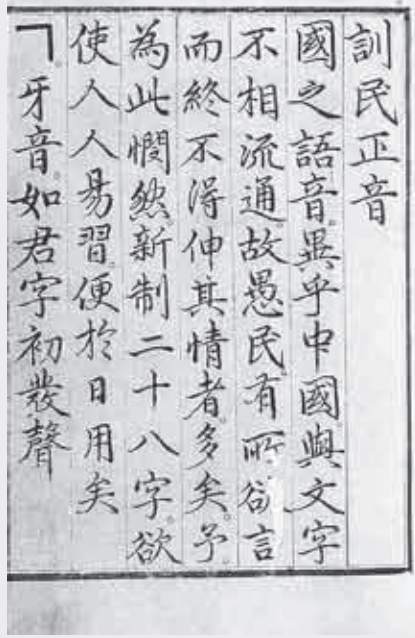
지닌 보살로서 성난 모습을 하고 있다. 분노라는 존명에서도 익히 알 수 있듯이 분노의 얼굴로 번뇌망상을 없앤다. 존명에서 월염(月 瞋)의 월(月)은 청정을 의미하고 염(瞋)은 까마귀를 뜻한다. 바로 부처님의 이마에 있는 백호(白毫)를 가리킨다. 백호는 흰색의 가느다란 털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제3의 눈으로 비유되며 지혜를 상징한다. 지혜의 눈인 이마의 백호로써 모든 장애를 없앤다는 의미이다. 『대일경』에서 이 보살을 분노항삼세(忿怒降三世)라 부르고 있듯이 분노로써 일체 장애와 번뇌를 진정시키는 보살이다. 그래서 다른 금강수 계통의 보살과 달리 분노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드럽게 해서는 일체 번뇌망상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보살은 네 개의 팔과 네 개의 이빨을 지니고 있는데 네 개의 팔은 지혜를 더욱 증장시켜 번뇌를 타파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네 개의 이빨은 사해탈(四解脫)을 의미한다. 네 개의 팔 가운데 첫 번째의 좌우 팔은 서로 교차하여 인(印)을 맺고, 두 번째의 좌우 손은 독고저(獨鈷杵)와 삼고저(三鈷杵)를 각각 들고 있다. 모두 금강같은 대지혜(大智慧)를 상징한다.

이와 같이 금강수원에 등장하는 제존(諸尊)은 모두 지혜로 일관되며, 지물(持物) 또한 지혜를 상징하는 금강저(金剛杵)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금강수원의 제존(諸尊)께서 무명 중생들에게 이렇게 설하는 듯하다. “용맹정진으로 지혜를 증득하라.”

(다음호에서는 ‘지명원(持明院)’의 제존(諸尊)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안동 광흥사 국보급 복장유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불에 탔다?

문화재청의 안일한 대응...배씨 3월 30일 방화& 실화 주장



▲ 안동 광흥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과 같은 간송박물관 소장 해례본

3월 26일 오전 9시27분께 국보급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중인 것으로 알려진 배씨 집에서 원인모를 불이 났다.

3월 30일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화재 현장에서 소장자로 알려진 집주인

배모(52)씨가 국립과학사사연구원 등의 합동 현장감식에 앞서 이번 화재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탔을 것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소장중이던 국보급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실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안동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은 “배씨가 집을 나가고 2시간후 불이 났다고 하는데 본인은 전기누전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방화도 의심돼 수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범종스님은 “배씨집을 검찰이 압수색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발견된바 없다”며 “최근에 배씨가 kbs에 취재에 응하면서 일부를 보여준 뒤 ‘앞으로 영원히 볼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는등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담고 있는〈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문화재 절도범 사씨가 2011년 법원에 나와 “99년 안동 광흥사 불상 뱃속에서 해례본을 훔쳐다 조씨에게 팔았다”고 증언한 상태다.

하지만 골동품상 조씨는 자신의 집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배씨가 조씨 가게에서 훔쳐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문화재 행방도

모른채 문화재청에 기증하는 기증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문화재 유동업자들과 손잡는 문화재청의 어이없는 국가 기증식에 대해 본지가 기사와 사실을 통해 지적해왔다.

특히 안동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은 원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자신들끼리 기증식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나라는 반응이었다. 그동안 훈민정음 해례본 반환을 위해 노력해온 안동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도 “도굴범이 안동 광흥사에서 도굴했다는 증언까지 하고, 재판 진행된 엄연한 광흥사 것”이라며 “국가가 공식 기증식을 한다는 것에 어이 없음을 느낀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조계종도 2012년 5월 4일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 스님 명의의 성명에서 “안동 광흥사에서 도난된 것으로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문화재를 일방적으로 기증을 받고자 절차를 진행하고 5월 7일(월) 공식 기증식을 가지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도굴범이 안동 광흥사에서 절취하였다는 증언을 했음에도, 해당 사찰이나 종단에 어떠한 협의나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국가로의

기증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국보급 문화재가 화재로 인한 소실이다.

일부에서는 수전역원의 가치가 있는 유물을 빼돌리기 위한 배씨의 꼼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그동안 훈민정음 해례본은 조씨가 ‘본인의 집에서 발견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례본을 가져갔다는 배씨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중이었다.

이에대해 도굴범 사씨는 어찌구니 없이 저렴하게 넘긴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들이 안동 광흥사 복장유물에서 도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사소송에 걸려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대법하게도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재판을 하고 있으며 조씨가 3년전 소유권 민사소송을 내서 2010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례본을 갖고 있는 배씨는 넘겨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다.

광흥사는 ‘광흥사(상주)본은 골동품상 조씨가 자신의 집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절도범 서씨에게 구입한 것이며, 조씨 가게에서 배씨가 훔친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한편, 한글의 창제원리를 담고 있어 보존상태가 현재 문화재보다 더 좋고 간송본에 없는 표기, 소리 등의 주석까지 달려있어 일부 학계 인사들이 추정가 액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광흥사(상주)본으로 불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놓고 국가가 눈독을 들어 결국 이 불상사를 만든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불교신문 김원우 기자는 국가 기증식이 진행된 2012년 5월 문화재청 훈민정음 해례본 국가 기증식 기자회견장에서 “훔으로 조성된 토불이고 완전 파괴된 상태인데 송진이 나오지 않고, 산화돼 깨끗한 상태가 아니어서 복장 유물이 아니라는 문화재청 주장이 맞나?”며 복장유물이 아니라는 문화재위원의 답변에 대해 이같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토불이었다는 점을 시인하며, 당시 완전 파괴된 상태였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문화재 위원들도 한차례 찾아가 2장밖에 못봤다며 이후 해례본이 종적을 감춰 더 이상 조사를 못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또 ‘훈민정음 해례본 광흥사(상주)본은 도굴범 서씨가 지난해 재판에서 자신이 광흥사에서 도굴했으며 조씨에게 팔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원소유자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가가 기증자에 대한 보상을 운운한 점에 대해서도 국가가 문화재 도굴을 장려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개인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기증을 활성화 하기 위함이다”고 답변했었다.

또 ‘형사고발 1심판결에서 광흥사에서 도굴된 복장유물이다’라고 판결이났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례본의 경우 훼손이 우려돼 찾고난 다음 원 출처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원래는 책이 묶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해체돼 낱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외유출 하려면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데 배씨가 감방에 수감돼 그건 어려워, 진공포장후 은밀한 곳에 묻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었다.

아름다운동행,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마련 선서화전 연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마련 선서화전을 연다.

4월 20~29일 조계종 총무원 로비와 나무갤러리에서 갖는 선서화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기증한 300여점을 비롯 경봉스님 종정 진제스님, 해인사 전방장 스님, 송광사 수덕사 방장스님등의 작품 500여점이 선보인다.

아름다운 동행은 현재 임시사무소를 건립하고 본관과 기숙사, 강당의 터파기 등의 진행으로 공정률 10%에 이르고 있는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기금 37억여원중 부족분 20여억원을 전시회를 통해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서화전은 배움이 학생에서 탄자니아 전체로 번져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지혜를 전달하는 깨달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건립을 위함이다.

특히 학교건립을 위해 스님들의 선서화 기증품을 기반으로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는 수도 다르에스살람 킴보니에 있으며 대지 33,221평에 연건평 1,132평이다.

학생은 120명, 교직원은 17명으로 예상된다. 이 학교는 전국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해 전교생 기숙사생활을 하도록 하고 수업료 장학지원월 통해 학생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는 2016년 3월말 준공되면 8월에 개교할 방침이다.

하와이 무량사 개산 40년 기념

문화행사 다양하게 개최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 사진) 개산 40년을 기념하는 ‘길’ 국악공연이 4월 17~18일 하와이 무량사 공연장과 하와이 MCCOY PAVILION(맥코이 바빌라온)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안길상 화백 초청 ‘부처님 묵향으로 만나네’ 서화전도 4월 18일 오후 5시 개막해 5월 31일까지 열린다.

또 창건 40년 기념법회는 10월 25일 봉행되고 무량사 팔홀로 한인 요양원 준공식은 10월 24일 열린다.

하와이 무량사 개산 40년을 기념하는 ‘길’ 국악공연은 평택 출신으로 하와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한국 민속음악과 국악교육의 큰 틀을 세운 고 지영희 선생의 후계자 30여명이 참가해 관현악 사물놀이 가야금병창, 춤, 소리 등의 공연을 통해 스승의 넋을 기리는 의미로 펼친다.

이번 공연은 고 지영희 선생 음악을 매개로 평택시와 호놀룰루시가 MOU를 체결하기 위해 함께 기획되었다.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과 공재광 평택시장은 3월 17일 평택시청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이번 행사의 서막을

알렸다.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는 호놀룰루시와 한국의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평택시는 자매결연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중이다.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은 “이번 무량사 개산 40년을 맞아 열리는 공연은 산사음악회 형식으로 열린다”며 “미국에서 우리 민속공연이 춤으로 획일화 돼 있는데 국악 관현악과 소리 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공연 이후 교포 2~3세들에게 국악의 흥미를 심어주기 위해 이번 공연유치를 준비했다”며 “일요법회와 함께할 어린이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구성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보현무용단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안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와이 무량사는 1975년 7월 조계종 전 종정 윤고암 스님이 창건했다. 초대 주지는 대원 스님이며, 호놀루루 한국 총영사관 후원에서 첫법회를 봉행했다. 그해 9월 호놀루루 시장부에 비영리 종교 단체로 등록했다.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 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궤 염송

『육자의궤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궤 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 예절’, ‘서원에서 예절’, ‘불교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 제1752호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형태는 넓고 당당한 어깨, 긴 허리, 넓고 낮은 무릎으로 인하여 장대하고 웅장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이러한 장대하고 웅장한 형태미를 갖춘 대형 소조상들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상 등 17세기 전반기 각지의 대표적인 사찰에서 조성된다. 대형의 소조불상의 조성 목적은 이전 시대와 달리 새로워진 불교계의 위상을 한껏 드러내고, 전란으로 소실된 불상을 빠른 시간 내에 재건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비로자나삼불상은 양대 전란 이후 재건불사 과정과 당시 달

보물 제1752호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高敞 禪雲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사로 250-0 (아산면, 대웅보전)
시대 : 조선시대

린 시대적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대변해 주는 매우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좌의 밑면에 기록한 묵서명에서 불상의 조성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로자나, 약사, 아미타라는 삼불상의 존명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 비로자나 삼불상의 도상연구에 기준이 된다. 그리고 1633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17세기 전반기의 대표적 조각승 무영과 그의 문하승(門下僧)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정확한 조성주체가 밝혀져 있고, 대형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각적·종교적 완성도가 높은 우수한 작품이다.

자료제공=문화재청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11. 보전수(寶箭手) 진언



옴 가마라 사바하

만약 좋은 벼를 일찍 만나고자 하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내용참조: "불교총전" 타인에 대한 덕의편 489p



포항 수인사 교도 금화보살입니다
20년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버섯 맛간장'을 선보입니다. 모든 재료 하나 하나 정성껏 준비해 교도 여러분의 건강을 서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많은 분들이 맛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전화 (054)231-2520
전화주문 요리의 명가 다미쿡(DAMI-COOK)

금화보살 버섯 맛간장

재료

표고버섯 · 팽이버섯 · 느타리버섯 · 송이버섯 · 다시마 · 무 · 양파 · 통마늘 · 통생강

버섯의 효능

장운동 · 변비 · 콜레스테롤 · 혈당 당뇨 · 발암물질배출
숙취해소 · 항암효과 · 탈모 · 구토 · 설사 ·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간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바다의 불로초 다시마의 효능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고 당뇨예방
갑상선예방 ·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가격

대(大, 1.8리터) 20,000원
소(小, 0.9리터) 10,000원
※ 10명 이상은 무료 배송 합니다.



20만명 참석하는 광복 70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5월 15일 ~ 18일, 광화문, 조계사, 현충원, 봉은사 일대...세계 간화선 무차 대회도 열어



▲ 봉행위원장 지현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의 기자회견 모습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고승대덕 불교지도자및 세계 종교지도자 약 300여명(세계불교승가회 소속 승려 포함)과 국내 종교 및 주요인사 약 2000여명을 비롯 사부대중 20만명이 참석하는 광복 70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가 5월 15일 ~ 18일, 광화문, 조계사, 현충원, 봉은사 일대에서 열립니다.”

세계평화 기원대회 봉행위원회(봉행위원장 지현, 조계종 총무부장)는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본과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행사중 세계 간화선 무차 대화도 봉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평화 기원대회 봉행위원회,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한불교 조계종이 주최하는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는 지역, 세대, 이념을

넘어 불자와 세계인이 함께 화합하고, 세계 고승의 법력과 불자의 염원을 통한 세계평화 기원하며, 광복70주년,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의 통일 기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간화선의 수승함을 널리 홍보하여 한국불교의 위상 강화하는데도 염점을 두 방침이다.

주요행사는 초청인사 만찬(15일 오후6시),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광화문, 16일 오후 6시)에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 회의(그랜드 힐튼 호텔, 16일 오후 1시)에서 채택한 평화메시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 행진(동대문 -> 광화문, 16일 오후 4시)을 한다.

특히 현충원을 참배(세계 불교지도자 동참, 16일 오전 9시)하고, 한국 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무차대재(조계사, 17일 오전 9시)를 열고, 환송만찬(17일

오후 6시), 연등회 문화행사 순례(17일 오후 1시 조계사앞) 종교지도자 전통 문화체험(17일 오후 2시 봉은사)및 전통문화순례(서울소재 전통사찰, 18일 오전)도 진행한다.

현재 확정된 각국 주요 참가자는 호주 Ven. Sudhammo(호주불교연합회 회장) Ven. Pannyavaro(롯데창시자), 방글라데시 Ven. Upannyajota mahathero(골드 사원 원장) Ven. Prajnananda mahathero(그린하트 승가대 총장), 캄보디아 His Holiness Tep Vong(승왕스님) Ven. KHIM SON(옛 보통 주지), 프랑스 Ven. Dr. T. Dhammaratna(UNESCO 불교협회 책임자) 등이다.

포 인도 Ven, Lama Lobzang(아쇼카미선 회장), 러시아 Ven, Andzha Khartskhaev (불교 사원 주지) Ven, Ochir Boldyrev (불교 사원 부주지), 말레이시아 Ven, 恒長老(불교연합회 회장), 몽골 Ven, Demberel Chojimangs(간단사 총무원장), 미얀마 Ven, Sayadaw Bhaddanta Jotiaka(차드나 승가대 총장) Dr. U Vannasir(브리야티 사찰 방장), 네팔 Ven, Namgyal Tamang(네팔 불교사원 총무부장) Dr. Nyima Norbu Thokar (네팔 티방사원 회장), 스리랑카 Ven, Niyangoda Vigithasiri Anunayaka Thero(시암중 말루와타 부종정) Ven, Dr. Godagama Mangala Thero(승가대 총장 스리랑카 복지재단 이사) Rev. Wendaruwe Upali Thero(복지사 주지), 베트남 Ven, Thich Ngo Tanh(국립 불교 집행 부원장) Ven, Thich Minh Thong(승가대 총장) 등이다.

현재 중국은 4월 10일 대표선출이

예정돼 있어 새로 선출된 인사가 참가기로
돼 있으며, 일본도 조동종과 한중일대회
관계자들이 참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만은 불광산사 주지스님이
오고, 태국 부탄도 참가자를 확인중이다.

이와함께 관심을 모으는 북한 조불련
인사의 참여도 긍정적으로 대회조직위측은
보고있다.

봉행위원장 지현님은 “불기2559년? 2015년은 온 국민들과 불자들이께 납과복, 복과나의 반목, 세대갈등과 이념대립을 넘어 공존, 상생, 합심의 정신을 일깨워 광복 70년, 불단 70년으로 상징지어줄 중요한 해”라며 “한국불교 1700년, 올해 범불교계는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고 세계 최고의 수행력을 갖추신 200여분의 고승대덕들을 모시고 큰스님들의 법력과 전세제 10억 불자들의 발원에 의해 한반도평화와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기원대회를 개최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한반도의 정체된 평화의
논의가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범불
교계는 북측불교계와 진전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대화를 준비하여 남북간
평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의 통일 기원을 통해 범불교계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여
남북·북남이 함께 평화로 나아가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 세계 불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모습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한반도의 통일이 새겨지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삼광사, 부처님 출가 모습 체험하는 문화탐방열차 운행



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출가제일을 맞아 신도, 문화소외계층과 함께 부산을 출발해 정동진에서 출가제일 의미를 체험하고 동해 일대 문화탐방을 진행한 ‘출가체험힐링열차’ 특별한 열차여행을 다녀왔다

문화소외계층과 다문화가족 등 총 350여 명이 함께한 ‘문화탐방열차’는 부처님께서 출가한 상황을 현대 문화에 맞춰 체험하고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

3월 26일 저녁 10시, 부산을 출발해

열차에서 잠을 청한 참가자들은 다음날 새벽 정동진 모래사장에서 부처님 출가 당시를 떠올리며 의미를 새겼다.

주지 무원스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동쪽 하늘의 새벽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듯이 동쪽의 떠오르는 새벽, 그 태양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이고 가족의 평화와 자신의 영광과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 주인공을 찾아가는 이 길에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주시라”고 말했다.

부처님 가사를 대신해 주지 무원스님이
염주를 걸어주고, 삭발 대신 자신의 머리

서울 구로에 불교전문서점 개원
희귀본 구해 주고 불교모임
공간도 제공



▲ 책방 비움과 소통

불교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점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487-36번지, 1층)에 최근 개점했다. 주인은 전 현대불교신문 취재부장을 역임한 도서출판 비음과소통 김성우 대표. 김 대표는 지난 3월 14일 구로변전소 앞 교차로 부근에 '책방 비음과소통'(www.bns-mall.co.kr)을 열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동시에 하는 이 서점은 불교계 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한다는 점, 또 중고서적과 절판된 책과 희귀본을 구해주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가 서점을 연 이유는 “교보 문고조차 불교 코너가 거의 사라질 위기다. 불교서적의 절판 시기도 짧아

시간이 나온지 일년만 지나도 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이 점이 가장 아쉬웠다. 다양한 불서를 갖추고 필요한 분들에게 지해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어 서점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서점에서는 또 불교 소모임을 가질 경우 무료로 장소와 차도 제공한다. 때때로 유명한 한책방 등을 찾아 절판된 불서를 모으고 있다는 김성우 대표는 “한책방에서조차 불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교출판업계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불자들이 불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의 : 02-2632-8739

신행담 공모

총지종보에서는
교도 여러분의
신행담을
공모합니다.

문의 : 02)552-1080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 쉬운 번역!
 ✓ 간결한 표현!
 ✓ 읽기 쉬운 원문!

화령 번역 / 불교종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2,000원 / 169쪽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총기 44년 새로운 모습으로
교도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흥포를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기 44년 상반기 49일 불공

총기 44년 2월 23일 ~ 4월 12일

장소 : 전국 서원당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928

Tel: 02,552,1080~3

Fax: 02,552,1082